

차세대 건설리더를 꿈꾸며..

인제대학교 4학년 이상욱

내 나이 27살, 대한민국 지방 사립대 4학년 휴학생의 신분이다. 취업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남자이자 장남이기도 하다. 건축학과에 입학한지 올해로 7년째, 건축이라는 멋진 이상으로 발을 내딛었지만, 그 이상은 2008년 현재 더 없이 치열한 현실로서 나와 대치중이다. 작년 여름 현실과의 싸움에 제법 지쳤는지 나는 휴학이라는 극약처방을 택했다. 건축의 꼬치라 생각하고 매진했던 설계는 나의 열정만으로는 넘기 힘든 커다란 벽이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꿈을 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던 중 건설, 시공, CM이라는 새로운 단어들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았다. 흔히들 단순 노가다로 치부해버리는 '건설산업'에 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건축학 전공의 틈에서 열심히 건설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고군분투 중에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과정 개설 공고를 보게 되었다. 설계에 관한 공모전과 워크숍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건설과 관련해서 특정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과정을 처음 본 터라, 교수님, 선배들, 지인들을 통해 아카데미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이것이다! 건설관련 과목이 학교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지식이 전무했던 나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눈이 동그래져서는, 바로 지원을 했고, 며칠 후 교육 참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교육과정 시간표를 출력하고, 1기에 다녀온 동기의 얘기를 듣고,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하는 과정 내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2007년 마지막 날 상경하여 2008년 새해 3번째 날, 첫 수업,,, 어려웠다.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 후회 뒤로 '오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이 따라와 주었다. 그렇게 아카데미는 시작되었다.

난 3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3일 이상 밤을 새며 설계에 죽고 못 살았던 자칭 디자이너였다. 당연히 설계가 내 길이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미친 듯이 설계에 임했다. '보수가 적다', '밤새는 일이 허다하다', '몸 상한다' 등의 많은 속설에도 꺾끗이 설계했던 나에게 '시공'으로 대표되는 건설산업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였지만, '취업'이라는 무서운 놈 앞에서는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그 때부터 내 꿈과 열정, 노력 설계를 향해 있던 모든 것들이 생소하기만 했던 '건설'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에만 집착하는 속물 같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같이 설계를 하자고 약속했던 선배, 동기들도 말리던 터라 더욱 그러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새롭게 시작했고, 나름의 노력으로 '설계' 만큼의 열정을 그대로 옮겨오는 데 성공하였다. 쉽지 않은 결정과 꽤 괴로운 날들은 보냈음이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에 남다른 애착이 생기게 된 이유이다.

1주차, 2주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생소했던 용어들과 내용들이 점점 자연스레 몸에 흡수되는 것을 느꼈고, 그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되었다. 출신학교만 보고 처음엔 서먹했던 형, 동생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서스럼 없이 생활하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되고, 나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꿈'을 구체화 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었다. 과정에 참가하기 전 나의 꿈은 일반건설업체 입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건설사 입사는 꿈도 꾸지 않았고, 적당한 직장에 입사해 경력이나 빨리 쌓아야지 하는 단편적인 사고 뿐이었다. 그런데 과정이 계속되고 매일매일 건설산업 각 분야의 다른 지식들을 접하면서 나의 생각과 '건설산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안일하기 짝이 없던 내 사고는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할 것이었으며, 이제라도 나의

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히 정하고 그에 따른 디테일한 플랜을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개념'이 미약하게나마 생겼다는 것이다. 기뻐다. 이것 하나만으로 벌써 난 10년 후 멋지게 성공한 건설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실무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강사님들은 이미 나의 역할모델이 되어버렸고,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한껏 들떠 있을 때쯤 경험했던 현장실습 또한 나를 신선하게 자극시켜주었다. 현장의 활기찬 에너지들은 남은 교육기간 나를 더욱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다. 길 것만 같았던 5주의 과정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얻은 것들이 너무도 많고 소중하기에 또 사랑하기에 이 과정을 쉬이 잊을 수 없을 듯하다.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모여 뒀는지 열심히 했던 우리 최강2기들, 이들을 위해 무한 서포터를 자처했던 조교님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신 사장님, 교수님 이하 모든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까운 시일 내에 멋지게 사회로 진출한 '차세대 건설리더'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굳게 약속하며, 지난 5주가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 열심히 해보자!!

깊게 배운 것은 아니지만, 처음 접했던, 생동감 넘치는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의 '맛'은 달았다.....